

[보도자료] 쿠팡, 땅끝마을 해남에서 의료취약계층 250여 명 건강검진 ‘온동네 케어’ 개최

2026. 7. 12.



해남군 송지면에서 열린 '쿠팡 온동네 케어'에서 박지원 의원, 명현관 해남군수, 장영철 쿠팡 전무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건강검진부터 이동 치과까지 아이들 성장 발달 검사도 지원
- 상반기 검진 대상자 중 이상 소견자 164명 의료기관 연계 및 후속 조치 지원

2026. 07. 12. 서울 - 쿠팡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서 찾아가는 건강검진 프로젝트 '쿠팡 온동네 케어'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남군 송지초등학교 달마관에서 열렸다. 해남군, 해남군보건소, 해남군자원봉사센터, 대한중앙의료봉사회, (주)지피와 협력해 고령층과 유아·청소년 등 의료취약계층 약 25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의료상담을 제공했다.

◇ 건강검진부터 구강검진까지 아이들 성장 발달 검사도 지원

해남군은 전국 최대 경지면적을 보유한 대표적인 농업지역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약 39.3%(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026년 2월 기준)에 달하는 초고령 지역이다. 특히 송지면은 땅끝마을에 위치해 의료기관 접근이 쉽지 않다. '쿠팡 온동네 케어'는 지역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건강검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공공의료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전문 의료진과 의료계 전공 대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접수와 간호 예진을 시작으로 혈압 등 기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과·한 의과·치과 진료와 혈액검사, 골밀도 검사, 치매·우울 선별검사 등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특히 해남군이 운영하는 ‘이동치과버스’도 함께 참여해 구강검사와 상담, 스케일링, 틀니 살균·세척 등 주민들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진료를 제공했다.

김현권 갈산마을 이장은 “땅끝마을인 송지면은 고령인구가 많고 의료기관 접근이 쉽지 않아 병원을 이용하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행사장을 제공한 송지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다.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AI 기반 성장 예측 기술을 활용한 성장 발달 검사를 실시해 개인별 성장리포트를 제공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해 커피차 ‘쿠팡 카페’를 운영해 음료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해 액자에 담아 전달했다.



의료진이 해남군 주민을 대상으로 혈당, 혈압 등 기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 사후 건강 관리도 힘쓴다 검진받은 90여 명, 실제 치료 시작

쿠팡은 운동네 케어를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건강에 이상 신호가 발견된 대상자들이 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유선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고, 실제 내원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밀착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올해 상반기 진행한 장수군과 단양군 행사에서는 약 900여 명이 건강검진을 받았고, 이 가운데 총 164명의 이상 소견자를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이 중 91명은 실제 치료를 시작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지원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완도·진도), 명현관 해남군수, 민경매 해남군의회 의장, 김영옥 송지초등학교장, 임명란 해남군보건소장, 황인경 해남군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의미를 함께했다.



의료진이 해남군 주민을 대상으로 의과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땅끝마을 송지면 주민들을 위해 먼 길 찾아와 봉사해주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평소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 지원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팡 사회공헌실 관계자는 “온동네 케어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예방 중심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